

#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Among Home Environment,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교 수 조 북 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전공  
조 교 수 이 진 숙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전임강사 한 세 영

College of Human Ecology,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Cho, Bok Hee*

Colleg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Lee, Jin Sook*

Dep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Han, Sae-young*

###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 of home environment,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fourth-grade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in China. The subjects were 190 children who completed the locus of control and social support scale and their parents who completed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Corresponding Author: Cho, Bokhee.,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Human Ecology,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91),  
Tel: 82-2-962-0258 (C.P. 011-9962-4938) E-mail: osu85@hanmail.net

Mother's education level,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environment at home were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scores of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upport from the teacher were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behavioral disturbances. The factors with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explaining behavior problems of 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were found to be physical environment at home,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teacher's social support.

**주제어(Key Words):** 행동문제(behavioral problem),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내외통제성(locus of control), 연변 조선족 아동(Korean-Chinese children in Yanbian)

## 1. 서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민족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소수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전승해감에 있어서 2세 교육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자녀들은 상이한 거시체계 환경의 다양한 요구들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초적인 학업능력과 사회적 기술의 학습이라는 발달과제 수행이 요구되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많은 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연변 조선족의 경우 해외 이주민으로서 오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립민속박물관, 1997, 1998). 그러나 이러한 고유의 문화적 공동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가족내의 부모-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나 사회 문화적 기대와의 차이 등이 작용하여 아동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의 아동과는 상이한 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조선족 아동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학교장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들에 대처함에 있어서 아동의 행동문제는 이후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내에서 조선족 문화를 지켜가는 특수한 환경을 가진 연변에서 성장하는 조선족 아동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문화적 양상에 관한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며(박성연·김미경·도현심, 2000; 이현정, 2001; 임채완·김경화, 2002), 이민자 자녀의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도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주류사회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즉 부모가 주류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때 자녀의 적응 또한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박성연·김미경·도현심, 2000; Farver & Lee-Shin, 2000). 또한 청소년자신의 주류문화와의 관계와 적응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박성연·도현심, 2001)와 최근에는 연변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Cho, Park, & Lee, 2004)과 학교적응(Cho, Lee, Park, Lee, & Han, 2004)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이렇듯 이민자 가정의 문화적 양상이나 조선족 아동의 적응에 관해서는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행동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문화를 체험한 이민자 자녀의 적응을 문화적변과 관련시켜 설명한 선행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으로 연변 조선족 아동이 어떠한 행동문제를 보이며, 이중문화 속에서 어떤 변수가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 연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심을 두고 아동의 행동문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의 지표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격성, 과잉행동 및 주의산만 등 외재적 행동문제 뿐 아니라 불

안·위축 등 내재적 행동문제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한 행동을 측정하고 연구하였다(박진아·정문자, 2001; 이진숙, 2001; Kim, 1992; Page, 1998). 본 연구는 아동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내재적, 외재적 문제를 포괄한 부적응적 행동을 행동문제로 정의하고, 불안·위축, 공격성, 주의산만의 세가지 하위요인을 행동문제에 포함시킬 것이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아동의 성별(박진아·정문자, 2001; Page, 1998) 및 연령(현은강·이현정, 1999), 가정환경(조미영, 1999; 한미현, 1996) 등이 검토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 및 주의산만 등 외재적 행동문제 정도가 높은 반면(김애경, 2001; 박진아·정문자, 2001; 이경남, 2000; 이진숙, 2001; Kim, 1992; Page, 1998), 여아의 경우 불안·위축 등 내재적 행동문제 정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다(이진숙, 2001; 박진아·정문자, 2001; 한미현, 1996).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동의 사회적 적응 점수가 낮아지고 불안 및 위축, 공격성 등의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현은강·이현정, 199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가정의 물리·심리적 환경 역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져 왔다. 행동문제의 하위유형에 따라 관련 변수가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과잉행동과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 가계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한미현, 1996). 조미영(1999)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불안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조건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으로 연결되고,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아동의 적응에 관한 연구(Cho, Lee, Park, Lee, & Han., 2004)에서 아동의 교육과 안녕을 위해 좋은 환경(공간, 책 등의 교구)을 제공할 수 있을 때 아동의 적응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비단 경제적인 여건의 반영일 뿐 아니라 부모의 아동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가족구성원의 가치지향성 및 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태도 등의 가정환경으로 정의되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유-통제, 사랑-증오, 수용-거부정도, 성취강조, 변화지향성, 물질지향성, 가족상호간의 의사소통수준, 역할기대수준, 상호친밀도, 집단응집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존경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장경문, 2003).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심리적 환경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김선희·김경연, 2001),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강차연·장연집, 1999)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반사회적 행동이 적고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모든 사회적 관계형성과 행동양식을 학습하는 기초가 되어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개방적일때, 적절한 행동양식과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행동문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김애경, 2001a).

주의산만이나 충동성, 과잉행동 등 행동문제가 자기통제력이나 사려성 등 아동 개인의 성격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내외통제 신념을 고려할 수 있다. 내외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와 원인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인과적 신념으로 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im, Sandler & Tein, 1997). Rotter(1966)는 어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지각할 때 내적통제(internal control) 유형으로, 행동 결과에 대한 원인을 운, 재수, 운명, 또는 타인의 압력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지각할 때 외적통제(external control)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내외통제 신념은 개인이 지닌 성격의 한 차원을 구성하고 각 개인의 다른 성격특성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아동 개인이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의 인과관계를 지각하는 방식을 의미하

는 내외통제 신념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외통제성과 아동의 행동문제 및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예컨대, 내적 통제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온 반면(Abraham & Hoffman, 1990, 최경숙, 1996 재인용) 외적 통제성이 높은 사람은 원인을 외부에 돌림으로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적대적이며 공격성향이 높아 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Pittman & Pittman, 1979). 즉, 외적통제 수준이 높을 경우 심리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반면, 내적통제를 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심리 사회적 적응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경남(2000)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통제소재 성향의 아동일수록 행동문제가 적게 나타나고, 외재적 통제소재가 높을수록 아동의 위축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밝혔다. 내적 통제신념을 가진 사람이 외적 통제신념을 가진 사람에 비해 욕구좌절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경향을 보이며(Nowicki & Brissett, 1977), 자아강도가 높고 욕구불만을 참을 줄 아는 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Shybut, 1970). 국내연구에서도 내적 통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선미·정옥분, 1995; 김애경, 2001b) 반사회적 행동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애경, 2001b). 한편, 성별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내적통제성이 낮게 나타났다(김애경, 2003).

특히, 연변 조선족이 한국의 아동과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중국문화권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연변 조선족 아동은 한국아동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선족 아동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로 학습하며(정확실·조연순·이성은, 1992), 교과서의 내용 또한 학교, 집단, 정부 등을 강조하는 등 개인을 강조하는 한국의 교과서내용과는 달리 구성되어 있다(박혜원·원영미·이귀옥, 2003). 이러한 교육과 철학의

차이로 인해 조선족 아동은 소속한 집단에 대한 책임감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 자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조선족 아동의 내적 통제성이 모두 한국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Cho, Park, & Lee, 2004).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내적통제성에 영향을 미치듯,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조선족 아동의 내적 통제성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한국의 아동과는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정환경 외에 학교환경의 영향이 커진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 가족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친구와 선생님의 영향력이 증가한다(김경연, 1987). 부모 외에 친구나 교사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타자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중요해진다는 점은 학교환경에서 교사와 또래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이중문화를 체험하는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거시체계인 중국사회의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이므로 학교환경에서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행동문제로 대표되는 사회적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내의 선행연구(김명숙, 1995; 정동화, 1995; 한미현, 1996)들은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 중재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은 학교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잘 극복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었다(Ladd, 1996). 또한 한미현(1996)의 연구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의 문제행동이 적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문제행동에 대한 효과는 사회적 지지를 지각할 경우 변화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Dubow & Ullman, 1989).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지망이 더 넓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도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ubow & Ullman, 1989)가 밝혀진 바 있다. 특히 조선족 아동은 비록 조선을 사용하고 조선족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지만 이들의 학교교육은 중국이라는

사회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교사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는 한국아동이 경험하는 교사지거나 또래지지와는 다른 의미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족 아동은 집단과 단체를 강조하는 사회철학이 교육이념으로 실행되는 중국문화권의 학교(박혜원·원영미·이귀옥, 2003)에서 생활하므로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가 한국 아동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 한국의 아동과는 상이한 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조선족 아동을 대상으로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아동의 성별 및 가정환경 변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 요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행동문제간의 관련, 교사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와 행동문제간의 관련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의 분포는 어떠한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연변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과 행동문제는 상관이 있는가?

셋째, 연변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행동문제는 상관이 있는가?

넷째, 연변 조선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행동문제는 상관이 있는가?

다섯째, 연변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제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국 연변 지역의 소학교 4학년에 다니는 아동과 그 부모 중 1명이다. 4학년

은 10대에 접어드는 시기로 문제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할 시기이며, 특별히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교사지지와 또래지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어머니 144명(75.8%), 아버지 46명(24.2%)으로 전체 190명의 부모와 그들의 자녀 19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으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분포는 남아가 87명(45.8%), 여아가 103명(54.2%)이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연령은 35-40세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40세 이상이 28% 정도였다. 어머니의 연령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35-40세가 약 절반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많은 연령대는 35세 미만으로 37% 정도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보면 고중 졸이 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학 이상(3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중 졸이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대학 이상에 비해 전과 졸 비율이 높게 나타나(31.2%) 부모의 학력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직업은 운수/장비운전기사, 사무직, 기업경영, 전문직 등이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는 14.2%이고 80%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여성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 가정의 월평균 수입을 구분해 본 결과, 월평균 1500원에서 3000원대에 속하는 가정이 전체의 46%를 차지했으나 1000원 이하인 가정도 30% 이상이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조사도구

#### 1) 가정환경

가정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 인구학적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가정의 심리·물리적 환경을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정의 심리·물리적 환경 척도는 아동 발달백서(한국아동학회, 2002)의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정도와 가정의 긍정적인 심리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3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변 수	구 분	명(%)	변 수	구 분	명(%)
아동의 성별	남	87(45.8)	응답한 부모성별	부	144(75.8)
	여	103(54.2)		모	46(24.2)
부의 연령	35세 미만	12( 6.6)	모의 연령	35세 미만	69(37.5)
	35-40세	118(65.2)		35-40세	93(50.5)
	40세 이상	51(28.2)		40세 이상	22(12.0)
부의 교육수준	초 중	12( 6.5)	모의 교육수준	초 중	13( 7.0)
	고 중	80(43.0)		고 중	78(41.9)
	전 과	38(20.4)		전 과	58(31.2)
	대학이상	56(30.1)		대학이상	37(19.9)
부의 직업	운수/장비운전	19(10.7)	모의 직업	전업주부	25(14.2)
	사 무 직	28(15.8)		판 매 직	26(14.8)
	기업경영	19(10.7)		사 무 직	24(13.6)
	전 문 직	13( 7.3)		교 직	12( 6.8)
	무 직	12( 6.8)		전 문 직	19(10.8)
	기 타	23(13.0)		기 타	15( 8.5)
가계소득	1000원 미만	53(30.5)	가족형태	핵 가족 확대가족	129(69.0) 58(31.0)
	1000원-1500원	29(16.7)			
	1500원-2000원	46(26.4)			
	2000원-3000원	35(20.1)			
	3000원 이상	11( 6.3)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관 컴퓨터, 학습공간의 구비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이 모두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환경임을 의미한다. 심리적 환경 요인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의 값은 .77이고, 물리적 환경요인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의 값은 .53이었다.

## 2) 내외통제성

아동의 통제소재를 조사하기 위해 민하영(1999)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적 통제소재 10문항, 외적 통제소재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통제소재 정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원 척도는 리커트식 4점 척도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와의 일관성을 위해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내적 통제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63이고

외적 통제요인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4이었다.

## 3) 사회적 지지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구자은(2000)이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 중 담임교사와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지지(예: 담임 선생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와 또래지지(예: 친한 친구는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준다) 각각 3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담임교사나 또래로부터의 도움이나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교사지지 하위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의 값은 .67이고 또래지지 하위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의 값은 .72, 사회적지지 전체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의 값은 .78로 나타났다.

## 4)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한미현(1996)

이 사용한 아동의 행동문제 척도 중 일부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학 연구자와의 협의를 거쳐 주의산만 3문항, 공격성 7문항, 불안·위축 3문항 등 아동의 행동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아동행동의 평가자는 부모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행동문제 전체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계수는 .80이었고 각 하위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71, .69, .5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설문에 의한 평가 방법을 사용한 것은 부모의 경우 아동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고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여 다수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설문과 교사설문에 의한 아동행동평가를 비교한 결과 부모설문에 의한 평가가 보다 타당하게 나타났다는 연구보고(Rowlison & Felner, 1988; 한미현, 1996 재인용)에 따른 것이다.

### 3. 조사절차

연구자료의 수집을 위해 2003년 3월 중국 연길시에 위치한 조선족 소학교 1개교를 유의표집한 다음 이 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조선족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소학교는 연길시 소재 조선족 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서 (학생수 1,776명, 교직원 162명) 대다수 학생들이 모국어로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부모가 조선족인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교사를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1주일에 걸쳐 수거하였으며, 97%의 회수율로 수거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한 질문지는 190부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 상관관계 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 행동문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내외통

제성 및 사회적 지지와 행동문제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를 통해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모든 변인들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예언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본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아동의 내외통제성 및 사회적 지지, 아동의 행동문제의 문항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등을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 점수는 내적 통제점수의 문항평균이 3.89(SD=.55)이고 외적 통제점수의 문항평균은 2.82(SD=.76)으로 내적 통제점수가 외적 통제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선족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정도를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교사지지 점수 평균은 4.28(SD=.84)이고 또래지지 점수 평균은 4.10(SD=.9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행동문제의 평균을 살펴보면  $M=1.43(SD=.30)$ 이었다. 가능한 점수범위(1~5점)를 고려할 때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 점수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점수의 문항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

변수	하위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
가정 환경	심리적 환경	176	3.76	.76	1.25-5.00
	물리적 환경	177	3.82	.85	1.00-5.00
내외 통제성	내적통제	162	3.89	.55	2.10-5.00
	외적통제	161	2.82	.76	1.10-5.00
사회적 지지	교사지지	175	4.28	.84	1.00-5.00
	또래지지	174	4.10	.97	1.00-5.00
	전체	170	4.21	.81	1.67-5.00
행동 문제	주의산만	162	1.64	.52	1.00-3.00
	공격성	152	1.38	.31	1.00-2.71
	불안·위축	161	1.47	.44	1.00-3.00
	전체	147	1.43	.30	1.00-2.57

〈표 2〉에서 기술된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 행동문제의 일반적 경향을 기초로, 아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 행동문제의 일부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내적 통제, 교사지지와 또래지지, 행동문제 중 불안·위축 하위영역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아가 남아보다 내적통제성이 높고( $t=-3.17, p<.001$ )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t=-2.36, p<.05$ ;  $t=-3.39, p<.001$ ). 행동문제의 경우 주의산만 및 공격성 영역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불안·위축 하위영역에서 여아가 남

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2.45, p<.05$ ).

## 2.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과 행동문제

다음으로 조선족 아동의 가정환경과 행동문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 전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 p<.01$ ).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의산만 및 공격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의 심리·물리적 환경과 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정내의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우호적일수록( $r=-.29, p<.001$ ),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좋을수록( $r=-.18, p<.05$ ) 아동의 전체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 우호적일수록 아동의 주의산만 및 공격성, 불안·위축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r=-.27, p<.001$ ;  $r=-.22, p<.01$ ;  $r=-.16, p<.05$ ), 물리적 환경이 좋을수록 주의산만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23, p<.01$ ).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은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평균 수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등은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유의한 상관관계( $r=.20, p<.05$ ;  $r=.30, p<.001$ )를 나타냄으로서 행동문제와 간접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버

〈표 3〉 성별에 따른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점수의 차이 검증

변수	하위영역	성별	N	M	SD	t값	
내외 통제성	내적 통제	남	72	3.74	.58	-3.17***	
		여	90	4.01	.49		
	외적 통제	남	72	2.94	.75		-1.79
		여	89	2.72	.76		
사회적 지지	교사 지지	남	80	4.12	.93	-2.36*	
		여	95	4.41	.73		
	또래 지지	남	81	3.84	1.06		-3.39***
		여	93	4.33	.83		
행동 문제	주의 산만	남	68	1.63	.48	-16	
		여	79	1.64	.55		
	공격성	남	68	1.39	.30		-42
		여	79	1.37	.33		
	불안 위축	남	68	1.38	.38		-2.45*
		여	79	1.55	.47		

\*  $p<.05$ , \*\*\* $p<.001$

〈표 4〉 조선족 아동의 가정배경과 행동문제 점수간의 상관계수

행동문제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가계소득	가정의 심리적 환경	가정의 물리적 환경
주의산만	-.08	-.18*	.07	-.27***	-.23**
공격성	-.09	-.16*	.01	-.22**	-.13
불안·위축	-.05	-.14	.03	-.16*	-.09
행동문제 전체	-.12	-.22**	0.6	-.29***	-.18*

\*  $p<.05$ , \*\* $p<.01$ , \*\*\* $p<.001$



지의 교육수준은 가계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33, p<.001$ ), 가계소득 역시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었다.

### 3.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행동문제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행동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5), 아동의 외적 통제성과 행동문제 전체 간에는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적 통제성과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25, p<.01$ ). 구체적으로 아동의 내적 통제정도가 높을수록 주의산만 정도가 낮아지고( $r=-.21, p<.05$ ) 공격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32, p<.001$ ). 행동 결과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지각하는 내적 통제신념의 정도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행동문제 점수간의 상관계수

행 동 문 제	내적 통제성	외적 통제성
주 의 산 만	-.21*	.13
공 격 성	-.32***	.15
불안·위축	-.13	.05
행동문제 전체	-.25**	.13

\*  $p<.05$ , \*\* $p<.01$ , \*\*\* $p<.001$

### 4. 조선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교사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 정도에 대한 지각과 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표 6), 교사 지지와 전체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r=-.22, p<.01$ ). 즉,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주의산만 정도가 낮아지고( $r=-.20, p<.05$ ), 불안·위축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r=-.23, p<.05$ ).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조선족 아동의 경우 또래의 지지보다는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6〉 조선족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점수간의 상관계수

행 동 문 제	교사지지	또래지지
주 의 산 만	-.20*	-.12
공 격 성	-.14	-.13
불안·위축	-.23**	-.13
행동문제 전체	-.22*	-.15

\*  $p<.05$ , \*\* $p<.01$

### 5.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행동문제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을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문제의 각 하위영역별 분석결과 역시 전체 행동문제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보고에서는 중복된 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행동문제에 관한 관련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는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중다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은 아동의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과 월평균수입, 가정의 심리적·물리적 환경, 내외통제성, 그리고 교사지지와 또래지지 변수이다. 중다회귀분석 실시 이전에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Durbin Watson 검증( $D-W=1.99$ )을 통해 오차항간의 자기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아동의 내적통제성, 가정의 물리적 환경, 그리고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의미있게 예언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beta=-.26, p<.01$ ), 아동의 내적 통제성이 높을수록( $\beta=-.21, p<.05$ ),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beta=-.20, p<.05$ ), 교사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beta=-.17, p<.10$ ), 아동의 행동문제 정도가 낮아졌으며, 아동의 행동문제 전체 분산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가정의 심리

〈표 7〉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전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97)

독립변수	행동문제	
	b	$\beta$
회귀상수	2.75	
성별	.02	.01
부의 교육수준	.02	.02
모의 교육수준	-.05	-.09
월평균소득	.04	.13
심리적 환경	-.08	-.26**
물리적 환경	-.11	-.20*
내적 통제성	-.12	-.21*
외적 통제성	.02	.06
교사 지지	-.09	-.17+
또래 지지	.07	.04
R <sup>2</sup>	.21	
F	8.35***	

+p<.10, \*p<.05, \*\*p<.01, \*\*\*p<.001

적 환경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예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아동 자신의 내적 통제소재 정도가 높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전체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연변지역의 조선족은 한국 이외의 단일지역에 거주하는 가장 큰 해외거주 한국인 집단으로, 중국이라는 거시체계 환경 속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양상 중에서도 특히 행동문제에 관심을 두고 가정환경 특성, 아동 개인의 내외통제성 및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지지 요인이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족 아동의 내외통제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내적 통제점수가 외적 통제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를 고려해 볼 때 교사 지지 및 또래지지 지각 점수 분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행동문제 수준은 낮은 점수분포를 보였다. 이는 조선족 아동들이 전반적으로 내적 통제 신념이 높고 사회적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행동문제 수준도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족 아동들이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내적통제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선족 아동의 내적통제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Cho, Park, & Lee, 2004), 또한 이들의 문제행동의 수준도 낮게 나타나 개인보다 집단을 더 강조하는 중국의 사회주의 교육이념을 갖춘 학교와 조선족 문화를 계승한 가정이라는 두 가지 환경에서 문화적변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조선족 아동의 적응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각 변수들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하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문제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따라 공격성과 주의산만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불안·위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 위축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불안이나 위축행동 등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밝힌 국내 선행연구(박진아·정문자, 2001; 한미현, 1996)와 일치한다. 그러나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 및 행동과다와 같은 외재적 행동문제가 높다고 보고한 연구(박진아·정문자, 2001; 이경님, 2000)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아동의 통제소재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내적 통제신념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내적 통제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이경님, 2000)와 일치하였다. 또한 조선족 아동들은 교사지지와 또래지지 정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성차를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와 또래의 지지와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지지망이 더 넓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도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de Anda, Baroni, Buchwald, Morgan, Ow, Gold, & Weiss, 2000;

Dubow & Ulman, 1989)와 일치한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교사와 또래의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한 점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한국아동이나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미국, 중국 등 많은 문화권에서 사회적 지지망은 여아에게서 더 발달해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가정환경 변수 중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변수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가정의 심리·물리적 환경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및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가정내 물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의 행동에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지도함으로써 자녀들의 주의산만이나 불안, 위축 행동 등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가정의 심리, 물리적 환경과 행동문제간의 부적상관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정된 가정환경 속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므로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결과는 중국 조선족의 문화도 사회적 평등만을 지향하던 획일적인 사회주의에서 변화하여 각 가정마다 아동의 행동문제 및 발달에 유의한 상관을 가질 정도로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국사회내의 조선족 아동이 바람직하게 발달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적응하기 위하여 가정의 심리적 환경 뿐 아니라 물리적 환경에도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버지의 교육수준 및 가계소득은 행동문제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상관을 가짐으로서 간접적인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외통제성 중 내적 통제가 높을수록 조선

족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 통제자가 외적통제자보다 어려움을 건설적으로 경향을 보이며(Nowicki & Brissett, 1977) 자아강도가 높고 욕구불만을 참을 줄 아는 능력이 크다(Shybut, 1970)는 선행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외재적 통제성향의 아동이 행동문제가 많으며(이경남, 2000) 내적 통제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힌 국내 선행연구결과(김선미·정옥분, 1995) 와도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떤 행동결과의 원인을 자신의 내적 요인으로 지각하는 내적 통제신념이 높은 아동의 경우,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높으므로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심리 사회적으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거시적 문화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과는 다른 가치체계를 학습하는 조선족 아동의 발달에 있어 내적 통제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은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Cho, Park, & Lee, 2004). 중국 조선족 아동은 개인을 강조하는 한국의 교과서 내용과는 달리 학교, 집단, 정부 등을 강조하는 등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중국 교과서로 학습한다고 밝힌 선행연구들(박혜원·원영미·이귀옥, 2003; 정확실·조연순·이성은, 1992)을 고려해볼 때, 조선족 아동에게 소속한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학습하도록 하는 중국의 교육과 철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서의 내적 통제성의 중요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선족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요인 중 또래지지는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을 얻음으로서 보다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 중 교사 지지나 가족 지지보다 또래 지지가 아동의 부적응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수라고 국내연구(김명숙,

1995; 한미현, 1996)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한데 비해 조선족 아동 대상의 본 연구는 초등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초등 5-6학년의 고학년에서는 또래나 친구의 영향이 부모의 영향보다 더 강해진다는 점(김경연, 1987)을 고려할 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연변 조선족 아동의 경우 우리나라 아동과 달리 또래보다는 가족이나 교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조선족 아동과 국내 아동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예언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상대적 예언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적 통제성, 물리적 환경과 교사지지 순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바람직할수록, 아동 자신의 통제소재가 내적일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 양호할수록 행동문제가 적으며, 아동이 학교환경에서 교사의 지지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행동문제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함에 있어서 내외통제 신념과 같은 아동 개인의 특성 및 가정과 학교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상대적 예언력에서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은 일반적으로 조선족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지닌 가정의 자녀의 경우 심리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예언력의 경우 교사지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구의 지지보다 교사의 지지 요인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선족 아동의 경우 우리나라 아동과는 상이한 특성

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변 조선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가정의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밝힌 Cho, Lee, Park, Lee와 Han(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중 행동문제에 중점을 두고 아동의 가정환경, 아동 개인의 내적 신념인 내외통제성, 그리고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몇가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측정도구들의 문항수가 적은 편이고 신뢰도 또한 낮게 나온 편이어서 후속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둘째, 한편, 응답자의 약 24%는 아동의 아버지였음을 고려할 때, 75%의 어머니와 비교해서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충분히 관찰하였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양육, 관찰한 아동과 어머니가 양육, 관찰한 아동의 행동패턴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조선족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내외통제성, 사회적지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함에 있어 성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행동문제를 분리하여 분석한다면 좀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아동으로 특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연령 집단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중국 여러 지역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보다 다양한 연령층을 포함하여 조선족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지역의 조선족 대상 연구 중 아동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에서 학령기 아동의 적응의 일면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에는 아동의 적응에 관련된 보다 정교한 모델의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조선족 아동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차연, 장연집(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 51-76.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국립민속박물관(1997). 중국 요녕성 한인동포의 생활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민속박물관(1998). 중국 흑룡강성 한인동포의 생활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정옥분(1995). 아동의 내외통제소재와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 149-163.
- 김선희, 김경연(2001).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아동학회지, 22, 19-35.
- 김애경(2001a).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 271-186.
- 김애경(2001b). 내외통제성, 가족의지지, 가족이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85-196.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3, 351-372.
- 민하영(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연, 김미경, 도현심(2000). 연변 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적변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 159-175.
- 박성연, 도현심(2001). 조선족 청소년의 문화적변이형과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 123-136.
- 박진아, 정문자(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 107-122.
- 박혜원, 원영미, 이귀옥(2003). 중국 조선족과 한국 아동의 읽기교과서 내용분석: 생태학적 체계에 따른 가치덕목의 비교. 아동학회지, 24, 55-69.
- 이경님(2000). 아동의 행동문제, 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화과학연구논문집, 8, 37-52.
- 이진숙(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현정(2001). 조선족의 중족 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 63-105.
- 임채완, 김경학(2002).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0, 247-273.
- 장경문(2003).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대처방식 및 심리적 성장환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 143-161.
- 정동화(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확실, 조연순, 이성은(1992).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초등학교과서 비교분석연구 -조선어, 사회, 수학, 자연, 교과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6, 5-44.
- 조미영(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1996). 아동의 내외 통제성 발달에 관한 요인분석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 198-216.
- 한국아동학회(2002). 아동발달백서. 한국아동학회.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은강, 이현정(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11,

- 167-179.
- Cho, B., Lee, K., Park, H., Lee, J., & Han, S. (2004). School adjustment of Korean-Chinese Children: Ecological factors in Yanbia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 127-140.
- Cho, B., Park, H., & Lee, K. (2004). A comparison of locus of control and school-related factors in Korean-Chinese and Korean children. *Journal of ARAHE*, 11, 65-71.
- de Anda, D., Baroni, S., Buchwald, L., Morgan, J., Ow, J., Gold, J. S., & Weiss, R. (2000). Stress, stressors and cop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 441-463.
- Dubow, F. & Ullman, C.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Farver, J. A. & Lee-Shin, Y. (2000). Acculturation and Korean-American children's social and play behavior. *Social Development*, 9, 316-336.
- Kim, L. S., Sandler, I. N., & Tein, J. Y. (1997). Locus of control as a stress moderator and mediator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5-129.
- Kim, S. (1992). *Early day-care the family as predictors of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add, G. W. (1996). Shifting ecologies during the 5 to 7 year period: Predicting children's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grade school. In A. Sameroff & M. Haith(Eds.), *The five to seven year shift*(pp. 363-38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wicki, S. & Brissett, M. (1977).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of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35-44.
- Page, T. F. (1998). *Linkages between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families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care setting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ittman, N. L. & Pittman, T. S. (1979).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E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7-47.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 1-28.
- Shybut, T. (1970).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time perspective and delay of gratification of high and low streng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6, 430-431.

(2004년 6월 30일 접수, 2004년 12월 24일 채택)